

43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공개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 도시관리계획 용역 · 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 및 광장 조성 등

전주시가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전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 43개 주요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으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정 주요정책과 현안을 중심으로 43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관리 이력을 중점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30억 이상 예산투입 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시민의 요청 등 중점관리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올해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등 30억 이상 예산 투입사업 25건,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8건, 시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 및 광장 조성사업 등 기타 사업 10건이 각각 선정됐다.

먼저, 30억원 이상 예산투입사업의 경우,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 △(가칭)중화산도서관 건립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전주 교도소 이전사업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사업 등이 포함됐다.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의 경우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 및 전주문화



꽃 비행 27일 오후 어느 도로 주변에서 호박벌 한 마리가 활짝 꽃망울을 터트린 연산홍 주위를 분주히 날아다니다며 꿀을 따고 있다.

특별시 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인 관리방안 수립용역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시내버스 손실보전 용역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서화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생태놀이터 및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 △한옥마을 쌍샘

우물 복원 및 광장조성 등이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관리 이력을 중점관리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실명관리 대상범위를 담

당자와 결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책임행정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공개된다. /이상민 기자

길 따라 물 따라, 두 바퀴로 '쌍쌍'

전주천 · 삼천 자전거길 따라 300여명 시민들 자전거 행진

봄기운이 만연한 4월 마지막 주말을 맞아 전주시민들이 전주천과 삼천 물길을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함께 달리는 자전거행진이 펼쳐졌다.

전주시는 4월 자전거의 날 주간을 맞아 28일 전주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확산을 위한 시민자전거 행진을 진행했다.

자전거 행진코스는 전주시청을 출발해 공구거리를 거쳐 전주천자전거길, 삼천자전거길을 따라, 완산체련공원까지 이어지는 약20km 코스로 진행됐다.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가족단위, 친구들과 함께 나온 학생, 동호회 회원 등 다양했으며, 자전거를 타고 전주 도심의 물길을 따라 행진하며 전주천과 삼천의 풍경을 즐겼다.

또한, 이날 자전거행진은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

에서 산악자전거(MTB) 다운힐 시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시는 행진참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해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브레이크 점검 등 자전거 정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올바른 착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다.

이밖에, 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시민자전거보험에 대해 홍보했으며, 공영자전거 체임단을 모집해 공영자전거로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치기도 했다.

이호범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어 감사드린다"라며 "자전거 이용문화가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과 9월, 10월, 11월에도 시민 자전거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봄 여행주간(4.28~5.13) 전주 국제영화제 · 한지축제

'전주시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국내관광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여행이 있어 특별한 봄날'을 주제로 '2018 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2018년 봄 여행주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지체험과 어진 탁본체험, 레일바이크 할인 등 다양한 할인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봄 여행주간 동안 전주 국제영화제(5.3~5.12), 전주한지문화축제(5.5~5.7)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영화와 한지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봄 여행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봄 여행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전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상민 기자

2030년 전주 문화지도 만들기 '스타트'

시, '문화비전 수립 연구용역' 착수... 일자리 창출 · 예술시장 활성화 전략 등 수립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에 나선 전주시가 전주 중장기 문화지도 그리기를 본격화한다.

시는 26일 전주부시장실에서 '2030 전주 문화비전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주 문화비전과 목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방안 등이 담긴 13개년 중장기 문화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2030 전주 문화비전은 전주시가 사상 처음으로 모든 문화영역을 아우르고, 전주시 문화·예술을 총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장기 문화발전 전략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가 올해 핵심비전으로 제시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중장기 문화정책 청사진인 '2030 전주문화비전'을 수

립해 추진하기 위함으로, 시는 2030 전주문화비전을 통해 문화행복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이자 문화특별시인 전주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문화관련 국내최고의 권위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대표 김정민)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2030년을 목표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전주의 문화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시킬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는 현장에서 문화예술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대두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정책반영 △지속가능한 미래변화 대응을 위

한 전략 △문화특별시로 나아가길 핵심 사업 발굴 등을 포함시켜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는 △전주지역 문화환경 분석 △전주시 문화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분석, △2030 전주문화비전 전략 수립(비전개요, 잠재력, 핵심전략) △전주문화비전 2030 주요 정책방향 및 여적사업(문화복지, 공동체문화, 인력양성,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도시 발전속 구상 등) △전주시 문화특화 핵심사업 발굴 △전주문화비전 2030 추진체계(추진로드맵,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시는 또 '2030 전주문화 포럼'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상민 기자

광고비 뜯은 언론사 대표 실형

전주지법 형사8단독 허운범 판사는 27일 은행과 건설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일간지 대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은행과 병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광

고비를 주면 비관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협박, 광고비 명목으로 5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협찬을 거부당한 기관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이 정상적인 광고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용도 및 회사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이상민 기자

홍정 중 흥기 휘두른 60대 구속영장

가격 흥정에 끼어들었다고 흥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2시께 술에 취해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B(58)씨의 가슴을 흥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장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

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흥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다슬기 판매 상인과 가격을 흥정을 하던 중 B씨가 상인 편을 들자 화끈하게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